

대행 스님

내일 살 걱정 하지 말고 하루살이로 살아 보라

마음의 차원을 높이려면

질문 일체가 다 다음에서 나온다 하지만 우리 무지한 중생들은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차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보십시오.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나무때기로 도구를 만들어 쓰는 시대가 있었고, 또는 돌을 깎아서 도구로 쓰는 시대가 있었고, 또는 구리로 만들어서 쓰는 시대가 있었고, 철로 만들어서 쓰는 시대가 있었고, 금속으로 만들어서 쓰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가 갖다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나왔단 말입니다. 마음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온 자체가 뭘 말하느냐. 여러분이 일체 만법, 그 무한의 진리를, 무한의 능력을, 창조력을 다 갖추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자꾸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까지 발전이 돼서 지금 통신이라든가 무기라든가 또는 어떠한 회사의 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창조를 해서 내놓고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이 세상을 다 자유스럽게 살게 해 놨는데 왜 그렇게 자유스럽게 못 사느냐는 얘깁니다. 삼라만상이 다 자유스럽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그렇다 하지마는 좀 마음을 넓게, 보고 듣는 대로 모든 것을 넓게 쓰세요. 우리는 색깔을 보고 저런 나무들이 어떠한 종류인가 하는 것도 밝혀내서 알고, 이렇게 잘 보고 삽니다. 그런데 빛보다 더 빠른 것은 이 마음의 심력입니다, 심력! 빛은 가다가도 물질이 있으면 반사가 돼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거기에서 또 늦춰질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어서, 빛이 그렇게 빠르다 해도 그런 한계가 있지만, 심력이라는 것은 은산철벽도 그냥 뚫고 나갑니다. 어떠한 물질이고 아랑곳없어요. 어디고 아랑곳없습니다, 정말. 멀고 가깝고도 없고 어떠한 물질이 앞을 가로막아도 그냥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심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시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집을 쓰고 다니면서, 내 집을 내 시자로, 내 종으로 이렇게 이끌고 나가면서 내 종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야 어떻게 불자라고 하겠습니까? 모두 중심이 튼튼치 못하고 마음이 요변덕을 떨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수억겁 광년을 거쳐서 나를 이렇게 진화시켜서 끌고 온 주인을 생각한다면 진짜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끌고 갔든 못 끌고 갔든 자기 주인이 끌고 온 것입니다, 여직껏.

그런데 주인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거기에 턱 맡길 수가 없다면, 여러분 몸도 역시 그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큰 트럭을 운전수가 막 요변덕을 떨고 앞을 가로막으면서 끌고 가요, 충돌할 듯이.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아 있는 기사더러 그랬습니다. "저것 좀 봐. 저 안에 운전수가 개떡 같으니까 저 차도 개떡같이 구르잖아?" 하고요. 그거예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 개떡 같다면 사람의 행동도 개떡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우리 심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광대무변하고, 이 세상을 그 심력에다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구나. 다 넣었다 꺼내도 줄지 않는구나. 이렇게 심오하고 이렇게 광대무변한 우리의 심력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좀 더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인내가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몸이 있는 채로 그 도리를 알아야 이름해서 열반계에도 가는 거지, 아니, 죽기만 하는 것이 열반이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내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갈 곳도 없다' 는 걸 알아야 열반이에요. 자세히 말하자면 '마음은 체가 없고 순식간에 나투면서 돌아간다' 는 그 점을 알면 열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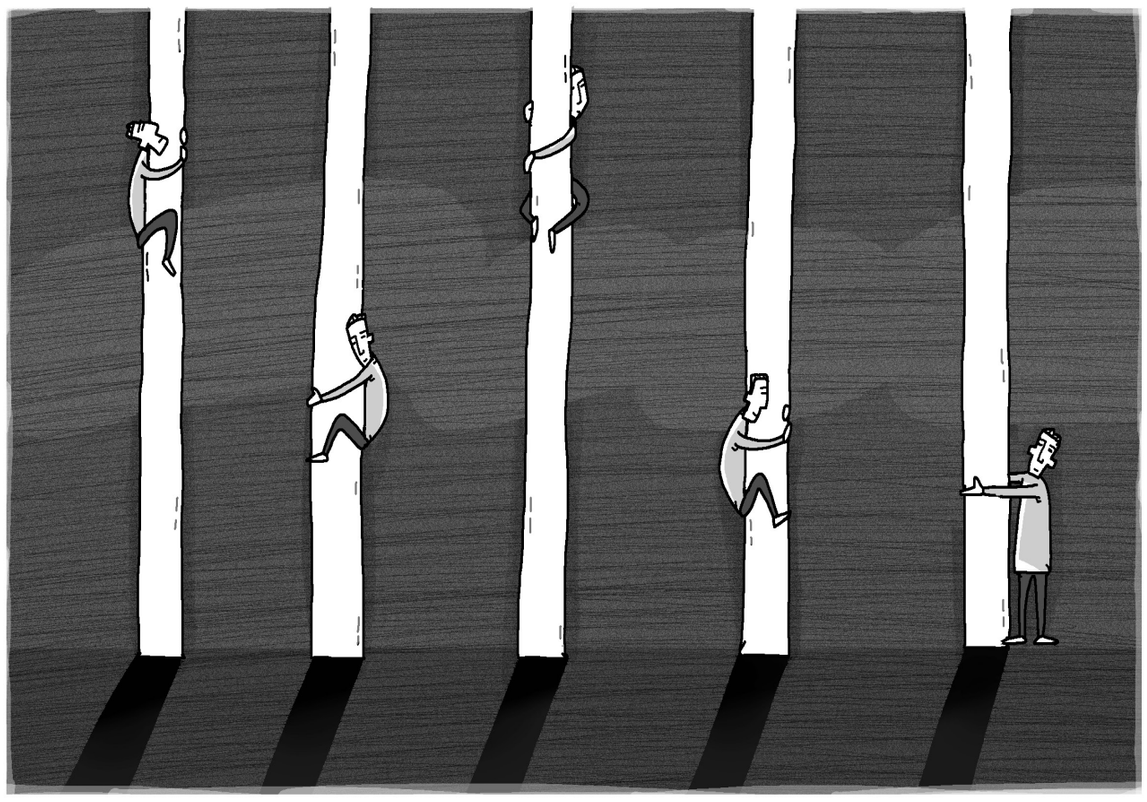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주인공을 정확하게 믿고 맡기려면…

질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신에 의존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라는 개념도 제가 자꾸 바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공을 정확하게 믿고 맡겨 놓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 아무리 주인공이다 할지라도 그 주인공을 형상으로 바깥으로 찾는다면 그것도 또한 도깨비장난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요, 일 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하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 도리만 안다면 우리가 자유인의 성취를 맛볼 것입니다. 어디에도 고통이 되질 않으니까요. 그러고도 능수능란하게, 괴롭지 않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일이 되는 것은 자기 육체 속의 의식들이 내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하나가 돼서 때로는 선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보디가드도 될 수 있고 해결사도 될 수 있고, 어떠한 환경 용도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해결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무조건 모두가 부처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가 못 되는 것은 단 하나, 모두 바깥으로 '주여!' 하고 찾고 바깥으로 '하나님!' 하고 찾고 부처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하고 바깥으로 믿고, 이렇게 자꾸 찾는 것을 바깥으로 찾으니까 내가 성숙이 못 돼요. 성숙될 수가 없죠. 첫째는 나부터 성숙돼야 되는 건데 내가 성숙된 게 아니고 말로 요량껏 이론으로만 밝아져요. 그렇다면 실천은 못 하죠. 어때요?

제법무아와 윤회

질문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법이 무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윤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가 제법이라 하면 일체를 말하고, 이 무아라고 한다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없는 그 가운데에 나, 자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아니 되고 저게 없어도 아니 되고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무아라고 한 것이지, 이러한 무아가 없다면 윤회가 어디 있으며, 윤회가 없다면 이러한 무아가 어딨습니까? 눈이 없는데 귀가 어딨고 귀가 없는데 눈이 어딨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육신이 보이지 않아서 무효고, 육체가 없어도 보이지 않으니깐 무효고, 또는 생각을 해내지 못해도 목석이니깐 무효예요. 다 갖추어서 생김생김이 잘생기고 잘 행할 수 있는 똑바른 사람이라야 그걸 제법의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그렇단 얘깁니다. 그래서 세상 뜻이 모두가 공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는 경지이기 때문에 제법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없어서 무아가 아니라, 우리 몸뚱이 속에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내세워서 나라고 할 수 없고,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없고, 내가 살림살이를 지금 하고 간다고 할 수도 없습니

☞ 22면으로 계속

